

1. 인(仁)의 윤리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교화[敎]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刑罰)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풍속이 험악해져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중략)…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예(禮)를 닦아서 조정을 가지런히 하고 법(法)을 바로 세워 관직을 가지런히 한다.

- ① 천하의 이로움[利]이 곧 의로움[義]이다.
- ② 예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다.
- ③ 인위적으로 만든 법제(法制)는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 ④ 이기적 인간을 다스리는 정치의 요체는 법(法)과 술(術)이다.
- ⑤ 법률은 타고난 덕성인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번]

3. 밑줄 친 ‘나’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나’는 만물을 아끼기는 하지만 어질게 대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어질게는 대하지만 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한 이를 친애하고 나서 백성을 어질게 대해야 하며,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무명(無明)으로부터 벗어나 자비를 베푼다.
- ② 심재(心齋)를 통해 제물(齊物)에 이르도록 힘쓴다.
- ③ 자기를 수양(修養)하여 이웃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 ④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쌓아 자연스러움을 회복한다.
- ⑤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9번]

2. 다음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의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세상의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으니, 이것을 이(理)라고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얕이 지극함에 이르러 의혹됨이 없을 것입니다.

을: 아닙니다. 마음의 본체(體)는 성(性)이고 성은 곧 이(理)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효의 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제가 (가) 고 보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 < 보 기 > —

- ㄱ. 먼저 도리를 알고 난 뒤 실천에 옮겨야 한다
- 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격물(格物)을 해야 한다
- ㄷ. 학문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ㄹ. 사욕(私慾)을 없애서 천리(天理)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번]

4.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만물을 아끼기는 하지만 어질게 대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어질게는 대하지만 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한 이를 친애하고 나서 백성을 어질게 대해야 하며,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현실을 초탈하여 만물 일체의 인(仁)을 이룬다.
- ② 마음을 엄숙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 ③ 본성을 함양하여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난다.
- ④ 경(敬)에 힘써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킨다.
- ⑤ 인의예지의 덕(德)을 실천하여 양지(良知)를 생성시킨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번]

5.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제(齊)나라 사람은 의(義)롭고 진(秦)나라 사람은 의롭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은 그 성정(性靑)에 맡겨 제멋대로였고 예(禮)와 의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중략)… 전설적인 말(馬)들도 처음부터 하루에 천리(千里)를 달리지는 못했다. 반드시 앞에서는 재갈과 고삐, 뒤에서는 채찍질, 위에서는 기수의 역할이 있는 후에야 천리를 달릴 수 있었다.

- 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② 예(禮)를 통해 존비 친소(尊卑親疎)의 구별을 없애야 한다.
- ③ 선(善)도 악(惡)도 없는 본성이 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④ 본성에 내재한 선(善)의 실마리를 잘 보존하고 확장해야 한다.
- ⑤ 상과 벌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도덕적 타락을 예방해야 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4번]

6.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제(齊)나라 사람은 의(義)롭고 진(秦)나라 사람은 의롭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은 그 성정(性靑)에 맡겨 제멋대로였고 예(禮)와 의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중략)… 전설적인 말(馬)들도 처음부터 하루에 천리(千里)를 달리지는 못했다. 반드시 앞에서는 재갈과 고삐, 뒤에서는 채찍질, 위에서는 기수의 역할이 있는 후에야 천리를 달릴 수 있었다.

- ① 통치의 요체인 법(法)과 술(術)로써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 ② 성인이 제정한 규범인 예(禮)를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
- ③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상벌을 제정해야 한다.
- ⑤ 무위의 통치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번]

7.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본래 백성은 이기적이다. 군주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 벌을 주면 백성은 게으르지 않게 된다. …(중략)… 군주가 백성을 좋아하지도 않고 백성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군주 자신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안 된다. 그러므로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주는 백성의 근원이다. 군주가 맑으면 백성도 맑고, 군주가 흐리면 백성도 흐리게 된다.

- 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禮)로 통치해야 한다.
- ② 신화와 백성을 조종하기 위해 법과 술(術)로 통치해야 한다.
- ③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인이 무위(無爲)로 통치해야 한다.
- ④ 백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 겸애(兼愛)로 통치해야 한다.
- ⑤ 선천적인 도덕성을 확충하여 인(仁)의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5번]

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일러 본성(性)이라 하고, 배우면 능해지고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는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러 인위(僞)라고 한다.
(나)	○ ㉠은/는 경건함이 없는 외형적인 사치보다는 차라리 경건함이 있는 검소함이 더 낫다. ○ 윗사람이 ㉠을/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잘 지키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다.

- ① 도덕적 생활과 사회적 실천의 기준이다.
- ② 성인(聖人)이 제정해 놓은 통치의 표준이다.
- ③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분배적 원리이다.
- ④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이다.
- ⑤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1번]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輕重)을 구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우선해야 하고,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앎(知)은 실천(行)의 시작이고, 실천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천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천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 < 보 기 > —

- ㄱ. A: 마음의 안과 밖에 모두 이(理)가 존재한다.
 ㄴ.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ㄷ. C: 도덕적 앎(知)은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해야 한다.
 ㄹ. C: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7번]

10.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성현이 베푼 가르침은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방법 아닌 것이 없다. 인욕이 없고 순수한 천리인 마음은 정성스럽게 효도하는 마음이다.
 ○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곧 이(理)이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도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도의 이치가 없다. 이치는 마음에서 구할 뿐이다.

— < 보 기 > —

- ㄱ. 앎(知)과 실천(行)을 병진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ㄴ. 참된 앎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
 ㄷ. 앎을 쌓아서 그릇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ㄹ. 사욕을 제거하여 참된 앎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8번]

1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양지(良知)는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공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마음은 본래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그 체(體)는 허령(虛靈)하여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용(用)이 미묘하여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나)	㉠ _____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치를 훤히 깨닫게(豁然貫通) 될 것이다.

- ① 본성(性)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② 참된 앎이 발휘될[致良知] 수 있도록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
 ③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을 갖추도록 공리를 하라.
 ④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임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항상 선행을 하라.
 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0번]

12.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곧 나의 앎이 환연히 관통하게 되어 가림이나 막힘이 없게 된다.
 을: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남이 곧 행동이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 ① 갑: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준 본성이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② 갑: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을: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따로 일[物]이 없다.
 ④ 을: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치지격물(致知格物)이다.
 ⑤ 갑, 을: 어리석은 이는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도 성인(聖人)이 될 수 없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2번]

13.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식과 부모에게는 자식과 부모의 이치[理]가 있고, 신하와 군주에게는 신하와 군주의 이치가 있다.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효(孝)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충(忠)의 이치를 군주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 하나에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 공통의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ㄴ. B :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ㄷ. B :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을 바로잡는다.
 ㄹ. C :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6번]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옛날에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지 않고 시신을 골짜기에 놓아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데 들짐승들이 시신 주변에 물려들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마에 진땀이 났던 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속마음[羞惡之心]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기>

- ㄱ. 도덕적 기운은 마땅하고 떳떳한 행동으로 길러진다.
 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義)의 실마리이다.
 ㄷ. 인의의 본성을 제외하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다.
 ㄹ.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변화시켜야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도덕적 심성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4번]

1. 다음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무릇 사람의 감정[情]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며 상(喪)을 당해서는 슬퍼하며 가까운 사람을 보고서는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보고서는 그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니, 이것들이 희(喜)·애(哀)·애(愛)·욕(欲)의 네 가지 감정입니다. 바로 인(仁)의 실마리[端]인 것입니다.

-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마음의 본체인 성(性)이다.
 ② 사단을 실천해 나가면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③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④ 사단과 칠정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⑤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9번]

2. 다음 조선 후기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기린은 선(善)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선행은 공(功)이 되지 않는다. 승냥이와 늑대는 악(惡)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악함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재주가 선행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재주란 능력과 권한을 말한다. 능력은 스스로 노력함에 있고, 권한은 스스로 주인됨[自主]에 있다. 그러므로 선하면 칭찬을 받고, 악하면 비난을 받는다.

- ① 사람의 혈기와 우주의 기를 하나로 보는가?
 ② 사람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③ 사람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가?
 ④ 사덕(四德)은 사람이 생득적으로 지니고 있는가?
 ⑤ 삶의 원동력으로서 사람의 욕구를 인정하는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번]

3. 다음 16세기 조선 시대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본연지성(天地之性)은 본래 오로지 이(理)만 가리키는 것이나, 이때에 이만 있고 기(氣)는 없겠는가? 천하에 기 없는 이란 없다. 본연지성이 이만 있는 것이 아닌 데도 이만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면, 기질지성도 비록 이기(理氣)가 섞여 있지만 기를 가리켜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이가 주가 되므로 이의 측면에서 말하였고, 하나는 기가 주가 되므로 기의 측면에서 말하였을 뿐이다. 사단에 기가 없지 않지만 그것을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 이가 없지 않지만 그것을 '기의 발'이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다.

- ① 사단과 칠정은 성(性)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이다.
- ②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理)가 주가 되어 발한 것이다.
- ③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情)이지만 연원이 다른 것이다.
- ④ 사단은 칠정을 겸하지 못하나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 ⑤ 사단과 칠정 모두 그 자체에 선악(善惡)이 함께 있는 것이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번]

4.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인(仁)은 천리(天理)가 아니고 바로 인덕(人德)이다. 공자가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인욕이 극복된 뒤에야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만약 인욕을 극복하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존재하는 인이 있어 인욕과 싸워 이긴다면, 오히려 이것은 인이 있는 이후에도 사욕과 싸우게 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인이란 것은 선악이 정해지기 전의 것이 되니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 ① 생득적으로 지닌 사덕(四德)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 ② 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③ 사단은 인간 본성인 사덕이 마음으로부터 표출된 것이다.
- ④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은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⑤ 인의예지의 본성은 사욕(私慾)을 극복함으로써 회복된 것이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5.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이미 발(發)해 절도에 맞는 것은 선이 되고,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악이 된다.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면 발한 뒤에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입은 한창 욕설을 해도 그 마음은 일찍이 선을 좋아하지 않음이 없다.

을: 어떤 일을 접해서 희로애락하는 것은 정(情)이다. 화내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의 선한 측면이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의 불선(不善)한 측면이다. 선한 측면의 정은 청명한 기(氣)를 타고 천리에 따라 곧장 나오는데, 그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실마리인 사단이다.

- ① 갑은 기질의 변화로 본성인 사덕(四德)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모두 기가 발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
- ③ 갑은 인의예지를 후천적인 덕으로, 을은 생득적인 덕으로 본다.
- ④ 갑은 기가 운동성을, 을은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천리로 본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6. 다음은 조선 시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옛 성현이 "자신의 사욕을 이겨내어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분명 인이란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중국 송대(宋代)의 어느 학자는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이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으니, 인이 마음의 덕(德)"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라고 생각한다.

- ① 인(仁)이 천리(天理)라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 ② 덕은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 ③ 덕이 본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이다.
- ④ 본성의 인이 외부로 드러난다는 것을 간파한 주장이다.
- ⑤ 본성이 선과 악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라는 것을 무시한 주장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7번]

7.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칠정(七情)이 이(理)와 기(氣)를 겸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四端)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아서, 그 발(發)하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主)된 바를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

—<보 기>—

- ㄱ.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 ㄴ. 칠정은 기가 움직여 드러나는 감정이다.
- ㄷ.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연원이 다른 것이다.
- ㄹ.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9.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情)의 선한 측면은 맑고 밝은 기(氣)를 타고 천리를 따라 곧바로 나오니 그것이 사단(四端)이다. 정(情)의 불선한 측면 또한 이(理)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이미 더럽고 흐린 기에 가려져서 이(理)를 해치니 사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性)이 아닌 또 다른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 기>—

- ㄱ. 사단은 이의 발(發)을 통해 실현된다.
- ㄴ. 사단은 단지 선한 정(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ㄷ. 사단은 성이고 칠정은 정이지만 그 연원은 같다.
- ㄹ. 사덕(四德)은 맑고 밝은 기가 발한 정을 통해 드러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2번]

8.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뒤에야 측은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보고서 측은해 하는 것은 기(氣)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대(發)는 것이요, 측은한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理)가 탄대(乘)는 것이다.
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히 여기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근원을 인(仁)이라 할 수 없다.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줄 때 수치심을 가지면서도 버리지 않는다면 의(義)라 할 수 없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을 그 연원이 다른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측은지심을 칠정에 포함된 정(情)으로 본다.
- ③ 을은 인간을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 존재로 본다.
- ④ 을은 사단을 반복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는 덕(德)으로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성(性)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9번]

10. 다음 16세기 조선 시대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단(四端)은 모두 선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이기(理氣)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유래하는 바로 말미암아 어느 것은 이(理)라 하고 어느 것은 기(氣)라고 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 ① 이와 기는 모두 무형무위(無形無爲)이다.
- ② 칠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정(情)이다.
- ③ 사단은 기가 발하여 순선한 정으로 나타난다.
- ④ 경(敬)으로써 칠정을 사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⑤ 마음의 작용을 이와 기의 발동으로 나누어야 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12번]

[11~12]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屬)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고, 사양[恭敬]지심은 구(懼)에 속하고 시비지심은 마땅히 희노(喜怒)해야 할 여부(與否)를 아는 정(情)에 속한다.
 을: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은 마음속에서 발(發)하는데 이를 끌어내 키운 후에야 인정(仁政)과 예법을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은 인정과 예법의 시작이다. 사단의 이면(裏面)에 또 인의예지가 있다고 하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선(善)한 정은 모두 기(氣)가 발해 나타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성한 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사덕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사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단을 이(理)가 발한 성으로 칠정을 기가 발한 정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천리(天理)인 인의예지를 마음에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12. 갑, 을이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상황〉

A는 휴대 전화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옷도 잔뜩 구매했지만, 금새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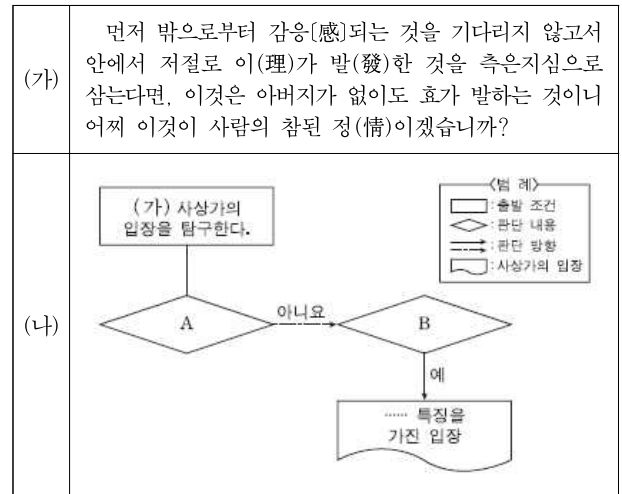
〈보 기〉

- ㄱ. 악이 되기 쉬운 칠정을 사단으로 변화시켜 사욕을 버리렴.
- ㄴ. 탁한 기질을 바로잡고 본연의 성을 회복해 사욕을 극복하렴.
- ㄷ.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스스로 사욕을 이겨내렴.
- ㄹ. 마음속 이(理)가 발한 선한 정을 바탕으로 사욕을 제거하렴.

- | | | | | | |
|---|----------|----------|---|----------|----------|
| | <u>갑</u> | <u>을</u> | | <u>갑</u> | <u>을</u> |
| ① | ㄱ | ㄷ | ② | ㄴ | ㄱ |
| ③ | ㄴ | ㄷ | ④ | ㄹ | ㄱ |
| ⑤ | ㄹ | ㄷ | | |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번]

13.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칠정을 바로잡으면 사단으로 발하는가?
- ㄴ. A: 측은지심은 칠정에 포함되는 정(情)인가?
- ㄷ. B: 칠정은 외부로부터 감응되어 발한 정인가?
- ㄹ. B: 측은지심을 기가 발한 것으로 파악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14] 갑, 을, 병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인(仁)은 자기를 이겨 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을: 인은 마음의 덕(德)이자 인간 본연의 성(性)이며 하늘의 이치(理)이다. 편벽된 기질을 교정하고(矯) 올바른 기운을 북돋움으로써(養) 본연을 회복할 수 있다.
병: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 이후에야 효도라는 이름을 얻듯이 인을 실천하지(行事) 않고서 그 이름을 얻을 수는 없다.

14. 갑, 을, 병의 관점에서 다음 <사례>의 A의 행동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 례>

A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동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그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보 기>

ㄱ. 갑: 가족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ㄴ. 을: 천리(天理)인 본성(性)에 따라 선(善)을 실천하였다.
ㄷ. 병: 타고난 사덕(四德)의 마음을 확충하여 실천하였다.
ㄹ. 갑, 을: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를 헤아려 실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15.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理)는 감정도 의지도 없고 조작하고 만들어 내는 능력도 없다(無造作).”라고 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생성 작용이 드러나는 운동을 알지 못하여 이(理)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도(道)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보 기>

ㄱ.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발하여 사단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ㄴ. 사단은 순선(純善)한 정으로 칠정은 불선(不善)한 정으로 본다.
ㄷ.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여 이(理)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ㄹ. 이는 본연이며 통하고(通), 기는 재료이며 국한된다고(局)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7번]

[16~17]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은 단지 이(理)만 말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이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두 갈래의 정(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發)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을: 칠정은 이(理)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感應)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理)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병: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義)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어 선을 행하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罪)가 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② 을은 본연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선악으로 나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기가 발할 때에는 항상 이가 기를 탄다(乘)고 본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17. 을은 부정,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行事)으로써 형성되는가?
ㄴ.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가?
ㄷ. 덕(德)은 마음의 이치(理)로서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ㄹ.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향(嗜好)은 인간의 본성(性)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12번]

[18~19]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물(物)이고 바로잡는 것이 격(格)이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옳은 생각을 행해야 마음의 본체가 회복된다.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 또한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理)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18.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덕적 행위[行]는 이치를 탐구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 ② 이치[理]는 마음이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인 대상인가?
- ③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해 나가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 ④ 도덕적 사고와 행위는 천리인 참된 앎[良知]이 발현된 것인가?
- ⑤ 도덕적 앎[知]을 얻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8~9번]

[20~21] 갑,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천지 사이의 이치[理]는 사물이 생길 때 성(性)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은 마음[心]이고, 성은 마음의 이치이다.

을: 성(性)은 하나일 뿐이다. 그 형체를 말할 때에는 하늘이고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때에는 성이며, 한 몸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음[心]이다. 마음이 말하여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효, 임금을 만났을 때에는 충이라고 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8번]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인간이 사물과 달리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지속적인 수양이 없으면 양지(良知)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앎은 반드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모두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격물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1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성(性)은 옴음(義)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자주의 권한(自主之權)을 주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정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권한이니, 금수(禽獸)의 고정된 마음과 다르다.

—<보 기>—

- ㄱ. 예(禮)는 공경하는 행위에서 형성되는 덕임을 간과한다.
- ㄴ. 기질(氣質)의 욕구를 좇으면서 악이 쌓이게 됨을 간과한다.
- ㄷ. 인간의 마음[心]이 도덕 행위를 주재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ㄹ. 인간만이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인 본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9번]

2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맹자는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할 때 측은지심이 생겨도 가서 구해 주지 않는다면 인(仁)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인의예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보 기>—

- ㄱ. 인의예지는 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치(理)라 할 수는 없다.
- ㄴ.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주의권(自主之權)을 형성할 수 있다.
- ㄷ. 사단(四端)의 실천과 덕의 형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 ㄹ. 덕(德)은 반복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22.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치[理]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조작이 없다는 것은 그 본체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쓰임[用]의 차원에서 보면 이치는 그 만나는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 이치가 스스로 이룰[自到] 수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을: 기[氣]가 치우치거나 온전하면 이치도 치우치거나 온전한데 실제로 치우치거나 온전한 것은 기[氣局]뿐이고 이치는 그 두루 미치는 특성[理通]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 기는 본래 깨끗하지만 그 깨끗함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에 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① 갑은 철정이 사단과 달리 선악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을은 기질지성이 교정되면 본연지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가 결합한 기질지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모두 본성이 마음에서 발현된 결과를 사단이라고 본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0번]

23.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의 성(性)이 선을 좋아함으로 인해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함으로 인해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인해 사덕(四德)을 이룰 수 있다.					
(나)						
		(A)		(B)		
				(C)		
[가로 열쇠] (A): 주희의 사상을 비판하고 심학(心學)을 체계화한 명 대(明代) 사상가의 이름. 호는 양명(陽明) (C): 고려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자(字).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세로 열쇠] (B): …… 개념						

- 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정의로운 마음이다.
- ② 사양과 시비의 마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덕이다.
- ③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선한 마음이다.
- ④ 예의를 배우고 익혀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할 때 형성되는 덕이다.
- ⑤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24.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만 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갑

정은 하나이지만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직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곁하여 말할 때가 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칠정을 곁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곁할 수 있습니다.



을

—〈보 기〉—

-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예 이가 탄 것인가?
 ㄴ.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인가?
 ㄷ. 이는 순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ㄹ.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7~8번]

[25~2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것에 탄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 하는 마음[惻隱之心]이 발현한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 하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다는 것이요, 측은해 하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드러날 수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情)이 움직인 것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7번]

25. 다음의 학생이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을 이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단과 칠정은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갑, 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 볼까요?

학생: _____ ㉠ _____

—〈보 기〉—

- ㄱ. 갑은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ㄴ. 을은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측은해 하는 마음을 기가 발하여 드러난 도덕 감정으로 봅니다.
 ㄹ. 갑, 을은 사랑[愛]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 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8번]

2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름[名]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사덕을 모든 사람이 지닌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아야 한다.
- ② 사덕을 사단의 확충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사단을 사덕이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보아야 한다.
- ④ 사단을 일상에서 선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사단을 사덕의 시작(始)이 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8번]

27. 한국 사상이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敬)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을: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이요, 경(敬)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보 기>—

- ㄱ. 성은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인가?
- ㄴ.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인가?
- ㄷ. 경은 일상에서 물욕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
- ㄹ. 성과 경은 참된 앎(良知)을 형성하여 성인에 이르는 방법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자비의 윤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번]

1.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緣)하여 행(行)이 있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긴다. 무명이 멸(滅)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 ① 연기(緣起)를 통해 만물의 실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수행을 통해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닫는다고 본다.
- ③ 불성을 어둡게 하는 삼독(三毒)이 고통을 낳는다고 본다.
- ④ 오온(五蘊)으로 된 '나'에 대한 집착이 탐욕을 만든다고 본다.
- ⑤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이 자비(慈悲)를 일으킨다고 본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번]

2.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괴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보 기〉—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번]

3.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200px; height: 150px;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0 auto;"> <tr><td style="width: 20%; height: 40px;"></td><td style="width: 20%; height: 40px;"></td><td style="width: 20%; height: 40px;"></td><td style="width: 20%; height: 40px;"></td><td style="width: 20%; height: 40px;"></td></tr> <tr><td style="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A)</td><td style="background-color: white; 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r> <tr><td style="height: 40px;"></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td><td style="background-color: white; height: 40px;"></td><td style="background-color: gray; 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r> <tr><td style="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d style="background-color: gray; 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d style="height: 40px;"></td></tr> </table> [가로 열쇠] (A):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 자연’ 사상 (B):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 일체’ 사상 [세로 열쇠] (A) : …… 개념								(A)				(B)								
		(A)																			
	(B)																				

- ①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②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③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 ④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 ⑤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4. 분쟁의 해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1.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달더라도(頓悟)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갓난 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기관(諸根)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근력을 충실하게 키워 내지 못하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보 기>—

- ㄱ.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ㄴ. 선종(禪)과 교종(敎)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동일하다.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漸修) 나가야 한다.
 ㄹ.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 있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2번]

2.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라고 하였다. 일심(一心)이 미혹되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며, 일심을 깨달아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결사(結社)를 통해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을: 모든 존재는 생멸 없이 본래 적정(寂靜)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를 ‘진여문’이라한다. 이 일심의 본체는 본래 깨달아 있지만 무명(無明)에 따라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멸문’이라 한다. 이러한 생멸문에서는 여래의 본성이 숨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보 기>—

- ㄱ. 갑: 화두를 활용한 선(禪)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ㄴ. 갑: 참마음의 본체는 지혜이고, 참마음의 작용은 선정이다.
 ㄷ. 을: 일반 백성들도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
 ㄹ. 갑, 을: 불교계의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무위자연의 윤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4번]

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 B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해 준다.
(나)	(A) _____. 그러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다. (B) _____.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A	B
①	항심(恒心)을 갖게 하라	항산(恒産)을 갖게 하라
②	예법(禮法)을 따르게 하라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
③	분별적 지혜를 쌓게 하라	마음을 비워 사욕이 없게 하라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라	사회적 이익을 똑같이 나누게 하라
⑤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게 하라	화란(禍亂) 재화를 중히 여기지 않게 하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번]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한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저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으나 이쪽에서 보면 보인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 …(중략)… 옳음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옳음이 있다. 그리하여 성인은 천(天)에 비추어 본다.

- ① 관심(觀心)을 통해 만물이 지나는 상대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오감(五感)으로 진리를 체득하여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③ 연기(緣起)를 자각하여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야 한다.
 ④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소요(逍遙)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⑤ 좌망(坐忘)을 통해 만물의 시비를 분별하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3번]

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 ① 자연의 질서에 위계를 부여하는 성인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② 자연 친화적 삶을 위해서 이론적 지식의 확충을 중시한다.
- ③ 차별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정신의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
- ④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한다.
- ⑤ 신인(神人)이나 군자가 되기 위해서 덕성의 함양을 추구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4.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애처롭다. 사람은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을: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 ①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 ②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 ③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가?
- ④ 도(道)의 실현을 위해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가?
- ⑤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德)이 실현된다고 보는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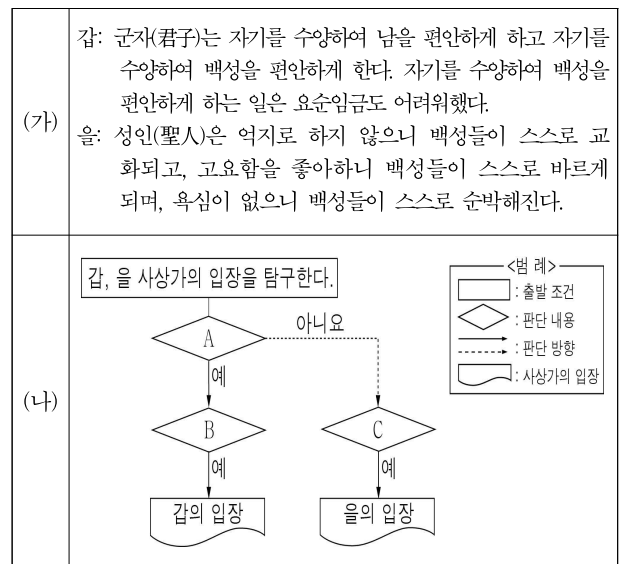
5.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선비는 예법(禮)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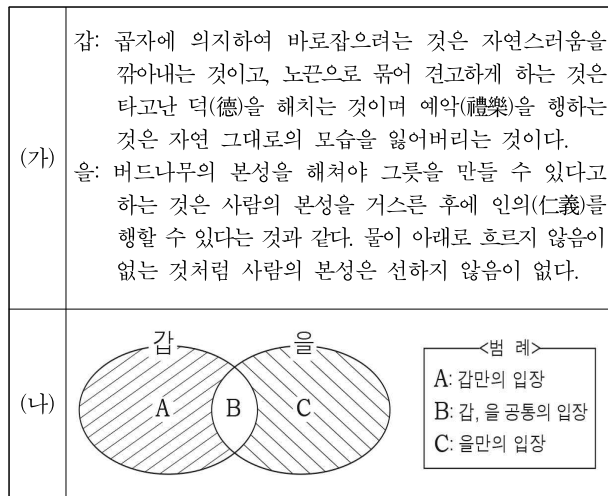
6.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 ② B: 문명(文明)의 발달이 없는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③ B: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 ④ C: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 ⑤ C: 시비선악의 분별을 통한 무위(無爲)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2번]

7.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② A: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③ B: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C: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⑤ C: 향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8. 다음 동양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흰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룬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물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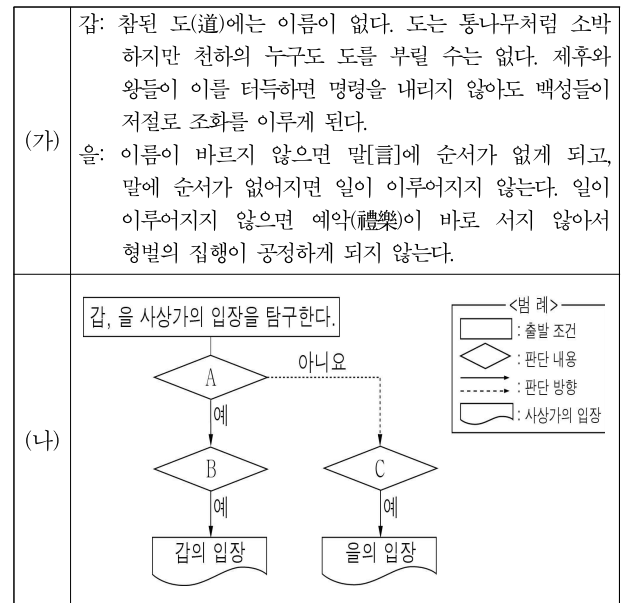
—<보 기>—

ㄱ.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道)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ㄷ. 자연적 본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ㄹ.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간에 귀천(貴賤)의 구분이 생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4번]

9.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사람들이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② B: 도(道)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가?
 ③ B: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④ C: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⑤ C: 인의(仁義)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人]는 밖에 있으며, 덕(德)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멸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을: 길흉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 천과 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가 인의(仁義)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변화하여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조화하게 된다.
(나)	

<보 기>

- ㄱ. A: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
 ㄴ. B: 자연적인 본성과 인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ㄷ. B: 예(禮)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ㄹ. C: 인간의 본성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5번]

1. 갑, 을은 조선 후기 사상가들이다. 을의 사상에 비해 갑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언제나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기(器)이다.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 이로운 것이라면, 비록 오랑캐의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

을: 서양인은 말에 순서가 없고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으며, 다만 제 몸만을 위해 빌 따름이다. 그들의 도가 허무의 학설에 가까운데 어찌 우리의 도와 같다고 하겠는가?

① ㉠ ② ㉡ ③ ㉢ ④ ㉣ 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 2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理)는 지극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實)하다. 그 본체는 무위(無爲)하지만 작용(作用)을 갖추고 있어 만물에 드러난다. 술개가 나는 것은 기(氣)이지만 날게 하는 것은 이(理)의 묘용(妙用) 아님이 없다.

을: 이는 형이상자(形而上者), 기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이는 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고, 기는 이 아니면 근거가 없다.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오직 기가 발함에 이가 타고, 이는 통(通)하지만 기는 국한(局限)된다.

병: 이는 마음[心]이고 성(性)이다.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사람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는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양지(良知)이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 ① 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이가 기와 결합해야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진리(眞理)를 마음이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이치로 본다.
 ④ 갑과 을은 치우친 기질 속에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⑤ 을과 병은 기가 이보다 먼저 발하여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5번]

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천지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새의 울음소리 역시 시천주 소리이다. ○ 개벽(開闢)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道)의 덕을 세상에 펼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한울이 명하신 바이다.
(나)	제자: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 ①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일상에서 수행하다.
- ② 남녀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미물(微物)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 ③ 모든 규범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 ④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주교의 교리를 신봉하고 지켜라.
- ⑤ 유교적 도덕과 신분 질서를 따르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라.

7. 사상의 연원, 덕(德)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1.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덕은 지식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가?
- ②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가?
- ③ 반복을 통한 습관화가 지적인 덕을 형성하는가?
- ④ 악은 의지의 나약함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 ⑤ 현실 속에 참된 존재가 있다고 보는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번]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많은 사람들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중간을 찾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의사의 말을 이해 하기는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바를 행하지 않는 환자와 비슷하다.

을: 만약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더 좋은 것을 행하려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해를 입게 되고 지혜를 통해 해로운 것을 물리칠 수 있다.

〈보 기〉

- ㄱ. 갑은 그릇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 ㄴ. 을은 부덕한 행위가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타고난 도덕적 덕의 지속적 실천을 강조한다.
- ㄹ. 갑, 을은 선한 행위의 실천을 위해 이성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5번]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각자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가 조화로운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중략) ... 이들 세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사이의 역할의 교환은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다.

- ①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을 정의로운 삶으로 본다.
- ② 절제를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만 지니고 있는 덕으로 본다.
- ③ 현상의 세계 내에 변화하지 않는 참된 존재가 있다고 본다.
- ④ 영혼과 관련된 덕은 국가에서 요청되는 덕과 다르다고 본다.
- ⑤ 시민들의 동의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있다고 본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번]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각자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가 조화로운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중략) ... 이들 세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사이의 역할의 교환은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다.

- ① 갑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덕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의지의 나약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7번]

4. 다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악행 금지와 규범의 엄격한 준수 같은 최소한의 윤리를 따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주목해야 한다.

—<보 기>—

- ㄱ. 도덕적 행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 ㄴ. 덕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한다.
- ㄷ. 행위자의 성품이 아닌 개별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한다.
- ㄹ.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 상황보다 추상적 원리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행복 추구의 방법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0번]

1. 다음 고대 서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3점]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되돌아간 것이다. 땅을 빼앗겼는가? 그것 또한 제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준 사람이 너에게 되돌려 달라고 한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나?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

- ㉠ 자유로운 삶을 위해 세계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
- ㉡ 정신적 관조를 통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 ㉢ 이성적 자각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 ㉣ 실천적 지혜로 자신의 주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 ㉤ 육체적 쾌락을 억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3. 고대 서양 사상이 가,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쾌락을 즐기고 나서 후회할 때와 멀리하고 나서 누릴 만족을 비교하여 경계한다면 어떤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치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
을: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므로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나 가장 적은 양의 필요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보 기>—

- ㉠. 가, 을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 ㉡. 을은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 ㉢. 가, 을은 육체적 욕구의 절제를, 을은 제거를 강조한다.
- ㉤. 가, 을은 고통을 견디는 삶을, 을은 고통이 없는 삶을 지향한다.

- ㉠ 가, ㉡ ㉢ ㉤
- ㉡ 가, ㉢ ㉤
- ㉢ ㉤
- ㉣ 가, ㉡, ㉢ ㉤
- ㉤ ㉡, ㉢,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2. 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삶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도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도피하지 말라. 쾌락의 추구는 깊은 성찰에 근거해 조심스러워야 한다.
을: 너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 연극의 길고 짧은은 이미 작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너는 단지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해야 한다.

—<보 기>—

- ㉠. 가, 을은 쾌락과의 단절을 삶의 목적으로 강조한다.
- ㉡. 을은 일체의 정념을 극복한 정신적 평정을 추구한다.
- ㉢. 가, 을은 검소한 삶을, 을은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 ㉣. 가, 을은 자연 질서의 파악을 위해 보편적 이성을 강조한다.

- ㉠ 가, ㉡ ㉢ ㉣
- ㉡ 가, ㉢ ㉣
- ㉢ ㉣
- ㉣ ㉡, ㉢ ㉣
- ㉤ ㉢,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4. 고대 서양 사상이 가,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너와는 관계없으며 너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을: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두를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보 기>—

- ㉠. 가, 을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 ㉡. 을은 심신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본다.
- ㉢. 가, 을은 쾌락과 달리 정치 참여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 가, 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 가, ㉡ ㉢ ㉣
- ㉡ ㉢, ㉣
- ㉢ ㉣
- ㉣ 가, ㉡, ㉢ ㉣
- ㉤ 가, ㉡,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나에게는 신과 나의 영혼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 ①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
- ②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⑤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0번]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인 행복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좋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습니다. '덕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덕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적당량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양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때가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시점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 좋은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①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은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모든 좋은의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좋은이 있다.
- ④ 인간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좋음들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
- ⑤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좋은은 존재하지 않는다.

9. 신앙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8번]

1.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항상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에 대한 소급이 무한히 진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그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초의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성적 논증을 통해 이 최초의 원인을 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철학은 신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①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본다.
- ② 신의 존재는 오로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증명된다고 본다.
- ③ 인간 본성은 도덕적 덕의 부단한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본다.
- ④ 인간의 궁극 목적을 절대선 그 자체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 ⑤ 영원한 행복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8번]

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신은 우리가 지닌 모든 선한 것들의 이데아, 바로 그 완전한 선이다. 우리는 신을 온 정신을 다해 사랑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경멸할 때, 지상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을: 신은 피조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행위와 개념들의 지배자이다. 신의 지혜는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이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① 갑은 신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 본다.
- ② 을은 인간 혼자 힘으로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신을 유일한 실체로, 을은 조화로운 자연 그 자체로 본다.
- ④ 갑, 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 신에 의한 구원에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이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4번]

3.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필연적 존재에 의한 증명, 완전한 존재에 의한 증명, 우주 질서의 창조자로서 지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으로 불릴 수 있다.

- ① 신은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 존재이다.
- ②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
- ③ 종교적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성된다.
- ④ 덕을 쌓아도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 ⑤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인 영원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나온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번]

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영원법은 모든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다. 만물은 신으로부터 영원법을 통해 각자의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원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실정법은 이성이 따르라고 명령한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①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 ②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라고 본다.
- ③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자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불변하는 영원법과 가변하는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고 본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5번]

5.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신의 나라에 속한다.
- ② 갑: 신은 만물을 창조하였으므로 악도 신의 창조물이다.
- ③ 을: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
- ④ 을: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필요로 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6번]

6.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행복은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신의 향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을: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죄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 ① 갑 :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다.
- ② 갑 : 인간은 신을 이성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 ③ 을 :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도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④ 을 : 성서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 ⑤ 갑, 을 :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종교적 권위가 더 중요하다.

7.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을: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① 갑: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 ② 갑: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③ 을: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 ④ 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10. 도덕의 기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8번]

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도 거짓일 수 있다.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발생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만이 확실할 것이다.

- ① 진리의 보편적 기준은 실용성에 있다.
- ② 의지의 역동적 힘이 세계의 본질이다.
- ③ 객관적인 경험 세계가 진리 추구의 출발점이다.
- ④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
- ⑤ 참된 지식의 토대는 사유 능력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12번]

2.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가장 위대한 최고선인 신(神)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덕의 실천과 신의 은총이 있어야 내세에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을: 신 또는 자연이 세계이며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 원인이다.

- ① 갑은 도덕적 덕과 종교적 덕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신을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 ③ 을은 신을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본다.
- ④ 을은 행복을 완전한 존재인 신에 귀의하는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완전한 신과 현실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본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철학과 신학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인간은 도덕적 덕이나 일시적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종교적 덕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을: 신은 필연적이며,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이다. 세계는 신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결정된 것으로, 의지조차도 신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사유와 사물은 신이 가진 무한 속성의 양태에 불과하다.

- ① 갑은 진리가 귀납적으로, 을은 초월적으로 인식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을 절대자 그 자체로, 을은 절대자의 창조물로 본다.
- ③ 갑은 신의 섭리가 직관으로, 을은 감성으로 파악된다고 본다.
- ④ 갑은 신을 이성적 증명의 대상으로, 을은 관조의 대상으로 본다.
- ⑤ 갑은 신과의 조화를 덕행으로, 을은 신앙으로 이룬다고 본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15번]

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과 자연은 신의 양태이며 우주의 모든 일은 신에 의해 결정된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인간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을: 인간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다. 죽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관념이 무서운 것이다.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 ① 갑은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 신의 은총을 강조한다.
- ② 을은 인간의 본성이 신과 세계의 본성과 동일함을 주장한다.
- ③ 갑은 무한성을, 을은 유한성을 인간 존재의 특성으로 이해한다.
- ④ 갑, 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인격적인 존재를 신으로 파악한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만든 도덕 법칙의 실천을 지향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2번]

4. 서양 윤리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 속의 L씨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만으로는 정념의 노예이다. 행동은 이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 비롯된 정념에 의해 안내될 뿐이다. 혐오 또는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고통 또는 쾌락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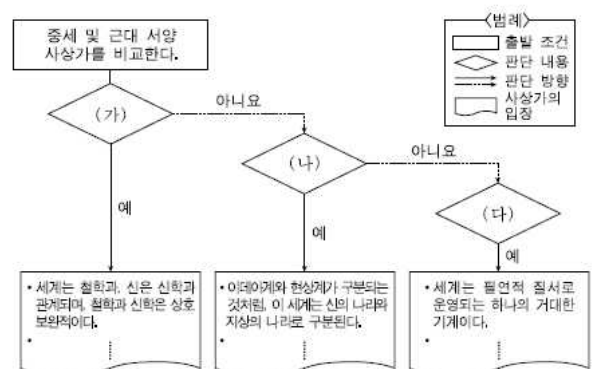
<문제 상황>

택시 기사 L씨는 손님이 내리고 난 뒤, 300만 원의 현금인 돈 가방을 발견했다. L씨는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다. 그래서 돈 가방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돈 가방을 분실한 사람의 불행에 공감해야 합니다.
- ②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③ 자기 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신의 계율을 따라야 합니다.
- ④ 정언 명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 ⑤ 돈을 분실한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6. 그림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 신은 유일한 실체이면서 동시에 자연인가?
 ㄴ. (나):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인가?
 ㄷ. (나): 신의 은총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가?
 ㄹ. (다):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최고선에 이르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12번]

7.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우주 만물은 신의 양태이며,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최고선은 이성을 통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오는 평온함, 즉 행복이다.																								
(나)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가로 열쇠] (A):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 중심주의 (B):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래 그러한 성품.' □□지성 [세로 열쇠] (A): 개념									(A)					(B)										
		(A)																							
	(B)																								

- ①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필연적 질서이다.
- ② 이성적 관조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③ 우주 만물을 창조한 완전한 신 그 자체이다.
- ④ 인간 의지에 의해 작동되는 유기적 체계이다.
- ⑤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5번]

8.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행위가 덕스럽거나 사악한 까닭은 그것을 볼 때 왜나 불쾌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보라. 당신이 거기서 발견할 것은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정념, 동기, 의지, 사고 들뿐이다.

- ① 정념은 이성이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②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에 있다.
- ③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통해 자기 중심적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 ④ 도덕 행위의 추동력은 감정이고 도덕 판단의 근거는 이성이다.
- ⑤ 감정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대한 이성적 통찰의 결과물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번]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는 오직 내가 생각하는 존재, 즉 정신이나 이성으로서의 존재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바로 생각하는 존재였다.

을: 나는 언제나 이른바 '나 자신'이라는 것의 심층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 지각들, 즉 사랑과 미움, 고통과 쾌감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성은 나의 행동과 정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보 기>

- ㄱ. 갑은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인과 법칙이 심리적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제1 원리를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사유하는 자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0번]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을: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도덕적 선악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 ① 갑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번]

11. 중세 서양 사상이 감,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감: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을: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 ① 감: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 ② 감: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 ③ 을: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④ 을: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감, 을: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13. 근대 서양 사상이 감,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을: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감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 ② 감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감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4번]

12. 다음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이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 ①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 ② 신의 양태인 자연 만물 안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한다.
- ③ 인간은 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 ④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 ⑤ 신의 자유 의지로 산출된 자연은 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번]

14. 근대 서양 사상이 감,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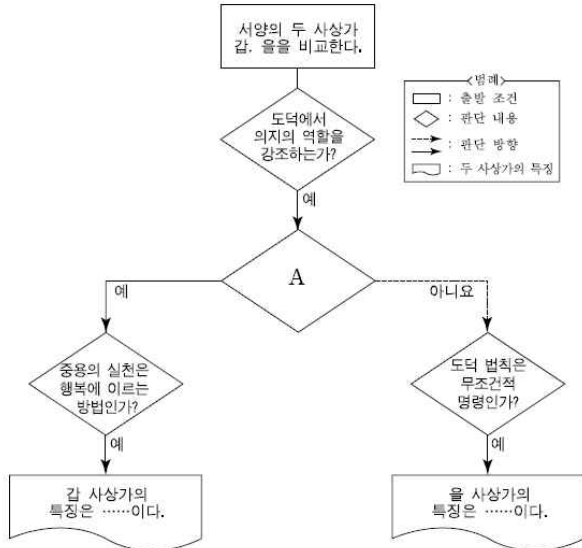
감: 사람이 어떤 상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감소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 ①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 ② 자연법칙에 관한 앎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 ③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 ④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 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앎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11. 옳고 그름의 기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6번]

1. 갑, 을 두 사상가를 비교한 그림에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도덕적 덕은 타고난 성품인가?
- ② 습관은 도덕성 형성에 필요한가?
- ③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중시하는가?
- ④ 의무는 실천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⑤ 옳고 그름은 행위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2. 그림은 근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행위의 목적에 의해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결정된다
- ② 공감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③ 다수가 동의하는 규범 원리에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④ 법칙의 사회적 승인 여부가 도덕 판단의 결정 요인이 된다
- ⑤ 도덕 원리에 대한 존중심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7번]

3. 서양 사상이 갑, 을이 <문제 상황> 속의 A씨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행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이다. 그 의지가 바로 실천 이성이다.

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관념이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도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관념을 탓해야 한다.

<문제 상황>

A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고 약속을 어기면 친구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너의 행위가 친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속을 지키렴.
- ② 갑: 자신이 입을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자율적 판단 원리에 따르렴.
- ③ 을: 일시적 쾌락보다는 지속적 쾌락을 고려해 약속을 지키렴.
- ④ 을: 친구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렴.
- ⑤ 갑, 을: 자신의 손해를 회피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행위하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번]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를 설명할 때 옳은 것은? [3점]

(가)	선행(善行)을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동정심을 발휘하여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 의식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나)	<table><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r><tr><td></td><td></td><td>(C)</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가로 열쇠] (A):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중지로 삼는 불교 종파. (B):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한 데카르트의 방법. '방법적 ○○' (C):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한 고려 시대 사상가 [세로 열쇠] (A): …… 개념								(A)				(B)						(C)							
		(A)																								
	(B)																									
		(C)																								

-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 도덕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다.
- 자기 의지의 격률을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 더 높은 삶의 목적이나 가치에 부합할 때 옳게 되는 것이다.
- 행위의 동기와 영향을 고려해 가장 적절히 행동하려는 것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번]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빗금 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삶의 목적이다.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검소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런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을: 쾌락의 양이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동물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동물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	

- 행복은 정념과 욕망을 제거한 마음의 평정 상태이다.
- 삶의 진정한 목적은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부재이다.
- 이상적인 삶은 사회 활동을 회피하며 절제하는 삶이다.
-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 증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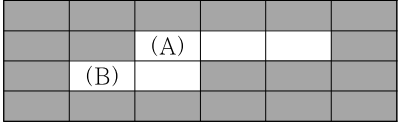
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는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선택한 다음 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해. 을: 아니야. 나는 개별적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행위의 옳음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갑: 그렇다면 네가 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일까? 을: 내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옳은 행위이지. 갑: 내 생각에 너는 너의 ㉠
--

- 거짓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 거짓말은 실천 이성이 세운 도덕법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 거짓말은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 거짓말이 낱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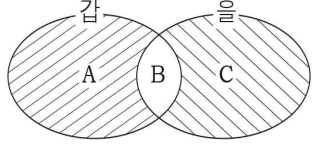
7.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해 제시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은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나)	 [가로 열쇠] (A): 도교(道敎)의 권선서(勸善書)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행위에서 잘한 점[功]과 잘못된 점[過]을 점수로 기록하는 책. (B): 어떤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일컫는 말. 예)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이다. □□와 의무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② 행위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동기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③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④ 쾌락의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쾌락의 양(量)을 계산하는 척도이다.
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2번]

8.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 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 공통의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택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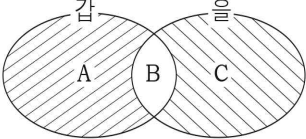
9.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 ①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④ 선택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0번]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행복은 이성의 이상(理想)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상상력의 이상이다.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며, 선의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이어야 한다. 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 공통의 입장 C: 을만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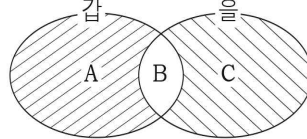
<보 기>

-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 공통의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7번]

1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1번]

13.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은 이성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 덕으로 확정된다. 오직 어떤 특성이 우리에게 승인 혹은 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는 그 특성에 덕이 있다 혹은 악덕이 있다고 느낀다.
을: 덕 또는 의무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 원리는 쾌락의 양만 고려하여 이익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를 승인 혹은 부인하는 원리이다.

<보 기>

- ㄱ. 갑: 덕과 악덕은 이성적 논증에 의해서 판별될 수 없다.
ㄴ. 을: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 사회의 이익이 있다.
ㄷ. 을: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 가능하다.
ㄹ. 갑, 을: 승인과 부인의 감정 자체가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번]

14. 근대 서양 사상이자, 율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을: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ㄷ. 을: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현대의 윤리적 삶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0번]

1.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의 사물들이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들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는 지성적 존재, 즉 인격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신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을: 신 앞에서 대중은 없고 삶의 주체인 나만이 있을 뿐이다. 신이 내가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것, 즉 나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진리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 ① 갑은 진리의 상대성을, 을은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 ② 갑은 이성보다 신앙을, 을은 신앙보다 이성을 중시한다.
- ③ 갑은 종교적 덕의 실천을, 을은 참된 실존의 회복을 중시한다.
- ④ 갑, 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우주의 필연적인 질서에 대해 관조해야 한다고 본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6번]

2.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부터 윤리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를 거쳐서 신에게 귀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을: 인간은 '현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 ① 인간은 불안을 계기로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가?
- ② 인간의 진정한 삶은 이성의 법칙에 충실히 따르는 것인가?
- ③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가?
- ④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추구해 주체적 삶을 실현해야 하는가?
- ⑤ 인간은 윤리 규범을 따름으로써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번]

3. 갑은 중세,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신의 존재 증명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으로 신을 알아야 한다.

을: 신앙의 역설이란 한 인간이 개별자로서 보편적인 것 밑에 놓인 다음에, 그 보편적인 것을 통해 보편적인 것 위에 있는 개별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역설은 신 앞에 선 단독자인 인간의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다.

- ① 갑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와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갑은 현세적 행복이 내세적 행복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주체적 결정을 회피한 결과라고 본다.
 ④ 을은 종교적 단계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진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본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번]

4. 갑은 고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자의 운명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을: 인간이란 자유롭도록 선고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의 무게를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 인간은 존재 방식에 관한 한 세계에 대한 책임자이자 또한 그 자신에 대한 책임자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이성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을은 불안 극복을 위해 신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 지혜롭다고 주장한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의 실존은 본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인(仁)의 윤리										1. 사상의 연원, 덕(德)									
1	②	2	⑤	3	③	4	②	5	①	1	③	2	④	3	⑤	4	①	5	②
6	②	7	①	8	⑤	9	④	10	③	6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④			2. 행복 추구의 방법									
2. 도덕적 심성(心性)										1	①	2	③	3	④	4	④	5	①
1	③	2	⑤	3	③	4	②	5	③	3. 신앙									
6	②	7	②	8	②	9	③	10	⑤	1	④	2	④	3	④	4	①	5	⑤
11	①	12	③	13	④	14	④	15	②	6	④	7	②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4. 도덕의 기초									
21	②	22	⑤	23	⑤	24	②	25	②	1	⑤	2	②	3	④	4	②	5	③
26	⑤	27	③							6	①	7	④	8	⑤	9	①	10	③
3. 자비의 윤리										11	⑤								
1	①	2	④	3	①					5. 옳고 그름의 기준									
4. 분쟁의 해결										1	②	2	⑤	3	⑤	4	①	5	③
1	⑤	2	④							6	⑤	7	③	8	⑤	9	①	10	③
5. 무위자연의 윤리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1	⑤	2	④	3	③	4	②	5	②	6. 현대의 윤리적 삶									
6	③	7	④	8	⑤	9	①	10	⑤	1	③	2	①	3	⑤	4	②	5	
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	④	2	⑤	3	②														